

아트경기 x 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이 병 찬

이병찬이 만든 거대한 생명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모습을 한 채로 시시각각 전시장에서 움직인다. 비닐을 라이터로 녹여 손으로 이어 붙인 그의 작품은 얇고, 연약하고, 가벼운 재료인 비닐로 제작됐고, 텅 빈 내부에는 바람을 주입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보인다. 각기 다른 크기의 전시장을 거대한 스케일로 가득 채우며 관객을 압도하는 그의 작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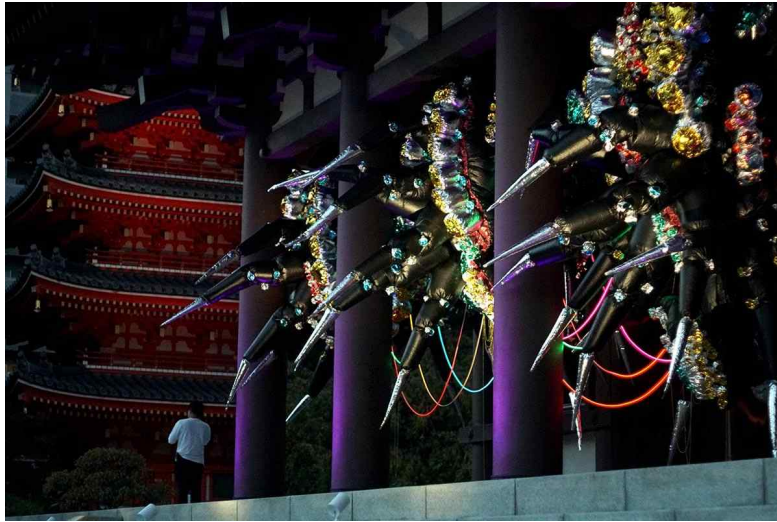


이병찬, CREATURE, 2019, 부산현대미술관

작가는 인천 송도에서 학교를 다니며 허허벌판, 공사판이던 지역이 개발의 과정을 통해 자본의 위엄을 과시하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목도했다. 도시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다름 아닌 자본이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수차례 이사를 다니고, 자본의 논리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항상 소외된 계층에 속했던 작가는 그가 직접 경험한 삶에서 느꼈던 감정을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해 왔다.

도시는 자본의 흐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끝없이 반복하며 흥하고 망하며, 또 융성하고 쇠퇴한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호 중 하나인 돈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바람이 주입되어 크게 부풀어 있을 때에는 공간을 가득 채우며 그 존재감과 위엄을 보란 듯이 과시하지만, 바람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플라스틱의 물질감만 남는다. 비트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미술품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이병찬이 말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면면과 매우 닮아있다.

전시가 끝나고 나면 모두 폐기되는, 판매도 쉽지 않은 그의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작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냉소적인 농담과 같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노동’은 거대한 괴물처럼 전시장에서 춤추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항상 행복하세요!”



이병찬, CREATURE, 2022,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글 최정윤 / 독립기획자



동시대 미술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또한 영등포에 위치한 비영리 전시공간 위켄드를 공동 설립(2016), 1년간 운영했다. 공동기획한 전시로 <청춘과 잉여>(커먼센터, 2014), <사물들: 조각적 시도>(두산갤러리, 2017)가 있으며, 2016년에는 젊은 작가들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다룬 <Rules>(원앤제이갤러리)전을, 2019년에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회화적 가능성을 말하는 <Painting network>(신한갤러리 역삼)전을, 2022년에는 임신 출산 이후 변화된 여성작가의 삶에 대해 말하는 <New Life>(스페이스윌링앤딜링)을 기획했다.

작가 이 병 찬 Lee, Byungchan b.1987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PCS, 25x20x32cm, 친환경 플라스틱 도료, 2020

이병찬은 신도시의 거대한 개발과 자본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도시 안에서 설정된 생태계의 장면을 다양한 형태로 연출한다. 거대한 자본의 질량이 주변 공간을 왜곡하고 모든 대상에 상품성을 부여하는 장면들은 일회성의 상품을 이용한 시각적 연출과 질량을 설명하는 퍼포먼스와 사운드 작업으로 연결된다. 작업은 자본의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벗어날 수 없는 위성처럼 살아가는 보통 사람을 이야기를 다룬다. 주요개인전으로 <지하실 표준 대기압>(송은아트스페이스, 2021), <흰 코끼리>(P21, 2019) 등이 있다.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믹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